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24.11)」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경북도)가 조성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참여하여 도내 벤처·스타트업 지원
-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5회계연도(추경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일	20. 3. 31.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3~5층
설립목적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 모태펀드, 해외VC 글로벌펀드, 지역혁신펀드 등 운용

2) 출자예정액 : 15억원

- 25년 4.5억원(30%), 26년 6억원(40%), 27년 4.5억원(30%)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 1) 조 합 명 :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경북 모펀드)
- 2) 운 용 사 : 한국벤처투자(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 3) 출 자 자 : 모태펀드, 포스코, 농협, 경북도, 구미·포항·경산·경주
- 4) 결 성 액 : 1,000억원(시비 15억원)

구 분	출자자		출자금(억원)	비고
경북 모펀드	모태펀드		600	
	포스코홀딩스		250	
	농협		30	
	경북도		60	
	기초지자체 (60)	구미시	15	
		포항시	15	
		경산시	15	
		경주시	15	
합계			1,000	

* 최종 결성시점, 총 결성액 및 출자자 변경될 수 있음

5) 존속기간 : 2025년 ~ 2037년(12년)

6) 투자대상 : 경북 도내 스타트업 및 혁신 벤처기업(12대 국가전략기술*)

※ 12대 국가전략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첨단로봇 ⑪차세대통신 ⑫양자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방시대 벤처펀드」 선정 ('25. 2. 27.)
- 모펀드 조합 결성 및 1회 출자금 납입 ('25. 7.)
- 자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한국벤처투자) ('25. 10.)

8) 기대효과

-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 1)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 2)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지역 혁신 벤처기업 발굴
- 3)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투자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0조, 제71조제4항
-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추경 예산(4.5억) * 출자예정액 15억원

나. 합 의 : 예산재정과장

5. 검토의견

○ 본 출자안은

- 구미시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에 15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반도체·이차전지·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펀드 청산 시(12년 후) 투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미시의 출자 규모가 적절한지 타 지자체(포항·경산·경주)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에 출자한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추후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